

남성 노인의 성(性) 인식에 관한 연구

이미란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tudy on the Sex Recognition of Male Elderly

Mi-Ran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s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노인의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부산과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성노인 13명의 동의를 얻어 일대일 면접방식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인 남성노인의 성인식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성>, <여전히 존재하는 성>, <제약이 있는 성>, <지원이 필요한 성>의 4가지 핵심개념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노인은 노년기의 성생활에 대하여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주변과 가족의 부정적 인식과 질병 등의 제약이 존재하나, 여전히 존재하는 성 욕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성교육 및 다양한 해소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성의식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연구이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남성노인의 경험적 특성과 욕구에 기반한 효과적이고 차별화된 개별 성상담 및 맞춤형 성교육과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남성노인, 성인식, 욕구, 지원, 융복합적, 프로그램

Abstract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comprehensive recognition of male elderly about the sex life in old age. We collected data through face to face interview after obtaining the consents of 13 male elderly over 65 years old who reside in Kimhae Gyeongnam and Busan. The result of study showed that the sexual recognition of male elderly participants include the core concept of <the natural and instinctive sex>, <still existed sex>, <the sex with restriction> and <the sex which requires support>. In other words, the male elderly recognized the sexual life of old age as a natural and instinctive thing, the restrictions still exist including the negative recognition of family and surrounding people and diseases but it is found that the improvement of social recognition about sexual desire, the sex education and aggressive support for the various solutions are required. As the sexual awareness of the elderly is the comprehensive and broad study, the amalgamative and integrated study should be continued in the various fields. Through this, we tried to suggest the basic documents to the effective and differentiated individual sex consultation based on the empirical characteristics and desire of male elderly, and customized sex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society program.

Key Words : Male elderly, Sex Recognition, Desire, Support, Amalgamative, Program

Received 27 January 2016, Revised 26 April 2016
Accepted 20 May 2016, Published 28 May 2016
Corresponding Author: Mi-Ran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sin University)
Email: dsmr0815@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경제 및 의료수준 향상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3.1%를 차지하였으며[1], 한국노인 1천 명 중 에서 65세 이상 노인 1.6%가 100세 이상 장수한다는 연구[2] 결과까지 보고되었다. 즉, 우리나라는 최단 시일 내에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곧 도래 할 것으로 예측 될 뿐만 아니라, 노인 1천 명 중 에서 16명은 ‘백세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년기의 건강, 여가, 소외, 일자리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거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젊은 노인’들의 증가와 더불어 남은 인생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열정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의 성문화는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3].

노인의 성문화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며,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연장된 노년기의 은퇴이후 여가시간과 이전보다 건강하고 적극적이며 개방적인 노인 문화 현상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성에 관련된 문제와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노년기의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4]. 특히, 노년기 성에 대한 무관심과 가족과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은 젊고 건강한 노인들에게 현실적인 성적욕구를 체념적, 거부적, 회피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되며, 소극적인 성생활과 음지로 왜곡되어 나타나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유교적, 가부장적인 과거의 가족문화와 남성 주도적이었던 성문화는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가족형태와 개방된 성문화 속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노년기의 성은 생식기능과 성기능의 저하로 인한 기능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성욕의 충족과 성생활만족이 삶의 만족에 연결되어 생애 전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욕구라는 측면[5]에서 그 의미의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다. 즉, 노년기의 성생활은 삶에 자신감을 주어, 부부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노인 스스로의 유용감을 획득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높일 뿐 아니라, 노년기의 고독감을 해소 시키고, 삶에 긍정적 윤희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6].

성인식이란, 개인이 갖는 성적인 느낌, 성적인 욕구, 태도,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7], 노년기에는 노인 자신의 성적욕구와 사회 속에서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노인 상 사이에 갈등을 겪기도 한다[8]. 노인의 성행동은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생식의 기능이 끝난 노년기에 성적욕구에 대한 일반사회의 부정적인 편견은 노인의 성문화에 대한 이중적 현실로 인해 또다른 왜곡된 문화를 낳게 만든다. 그러나, 인간은 평생 성적 특성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게 되며, 특히 노년기는 성숙과 발달의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성욕구와 성기능을 유지하며, 성생활을 건강하게 즐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9].

또, 성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중의 하나이므로 노인의 성욕도 긍정적인 방법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노년기에도 이성에 대한 관심과 성생활에 대한 즐거움은 크게 변하지 않으며, 남성노인의 경우 70세가 넘어도 성욕을 관장하는 남성호르몬의 수치는 20대의 3분의 2수준을 유지한다고 보고되었다[9]. 이처럼, 증가하는 노년기 성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욕구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으로 노년기 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Kim[10]은 노인의 58.1%가 현재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 달에 2, 3회의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Lee[11]은 노화가 되었어도 노인은 “성생활이 중요”하고 성관심도 “예전과 다름없다”고 보고하였다. Lee & Kim[12]은 노년기 성 욕구는 반드시 해소해야 하며, 적극적인 성욕충족을 통해 삶의 의욕과 만족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Lee[13]은 남성노인들은 월 평균 2회 이상 성생활을 하고 노년기 성생활은 부부관계의 결정적 끈이라고 하였고, 정기적인 성생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Hwang[14]은 노년기 성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태도와 본능추구적인 태도로 나타났고 노년기의 성은 삶의 필수조건으로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노인 연구들은 성 생활 실태[10, 13, 14, 15, 16, 17, 18, 19]와 성생활만족도[7, 20, 21, 22], 와 성 욕구[11, 12, 23, 24] 연구가 노인 성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노인의 성을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 신체적 성기능연구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성 연구가 일차원적으로 노인의 생리적인 성문제로만 다루어 매우 미시적 차원의 연구에 머무르는 상황이

었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남성 노인의 성의식은 단편적이거나, 획일적인 계량적 연구가 아니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더불어 고차원적인 삶의 질적인 전 영역에 걸쳐 연구되고 분석논의 되어야 할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연구이므로 관련된 연구들은 노년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의료간호학, 산업공학, 상담학, 미디어 콘텐츠학, 헬스케어학, 사회체육학, 고령친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과 연계선상에서 융합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14, 17, 23, 25, 26, 29, 30].

그러므로, 가정과 사회에서 은퇴 이후 장기간 소외되는 남성노인에 대한 실제적인 성인식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앞선 선행연구에서도 남성노인이 성에 대해 더욱 허용적이고 적극적이었으며[11], 남성의 성적 욕구가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9, 12, 13, 17], 노년기에도 이러한 관심과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남성노인은 꾸준한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13, 23]. 또, 남성노인은 전반적으로 성생활 욕구가 강하여 직접적인 성관계를 포함해 적극적인 해결방식을 취하고 있어 성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14, 18, 20].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성노인의 성문제 연구에 외면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현상만 가중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 연구들은 계량적 연구로, 노인들의 성생활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인적인 접근으로 노인의 삶에서 성생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과하여, 결과물에 대한 수량화에 무게중심을 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성다움을 강화시키는 군대문화, 직장직접대문화, 동아리의 집단문화 등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을 습득하고, 한국의 가부장적 제도에서 이중적인 성 윤리 규범[17], 남성지배적 성문화 속에서 평생을 살아 왔던 남성노인이 노년기에는 어떻게 성생활을 하고 있는지, 남성노인의 성생활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매우 드문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노년기 남성의 성생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성 노인들의 직접적인 경험의 사실에 중점을 두고, 그들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성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남성노인의 개별성과 독특성 및 노인의 성생활에 관한 삶의 깊이를 끌어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남성 노인들을 직접 만나, 성생활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탐색할 것이다.

또, 과거와는 달리, 노년기 성문제는 연장된 노년기의 여가시간과 심리적 욕구, 홀로된 노인, 건강문제, 젊은 노인의 증가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현실적인 방안이 요구되어지는 시점이다.

특히,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간에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성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6, 13, 15], 개별적 남성노인의 성인식 연구는 중요한 경험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적인 노년기를 영위하기 위해 남성노인의 성인식을 실제 개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노인의 성욕구와 경험적 해소방법을 통하여 현재노인과 미래노인의 성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프로그램개발과, 노인복지 실천대안 마련에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노인의 실제 성생활 유무와 성생활대상은 어떠한가, 둘째, 남성노인에 의한 경험적 성생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를 살펴봄으로 노인당사자 관점에서 성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남 김해시 D동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남성노인과 부산광역시 용두산 공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남성노인 13명이다.

경남 김해시 D동 경로당은 경상남도 김해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이 찾는 왕래를 하는 곳이다. 또한 부산광역시 서구 남포동에 위치한 용두산 공원은 휴식과 편의시설이 잘 이루어진 곳으로 3회 방문한 결과 남성 노인들이 가장 자주, 쉽게 모이는 곳이므로 두 장소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두 지역의 선정이유는 전국 7대 도시 중 부산의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연령, 계층의 남성노인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남포동 용두산 공원을 선정하였다. 또, 노인들이 일대일 면접조사에서 응답하기에 다소 심리적 저항이 있을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의 주제연구이므로, 1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친분을 맺고,

안면을 익힌 노인분들을 쉽게 연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해 경로당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성”이라는 주제의 특수성과 노인 개인의 고백적 인터뷰의 연구 특성상 대표성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자가 실제 많은 남성노인을 만날 수 있는 개방된 장소로서 부산의 대표적인 노인 휴식공간으로 용두산 공원을 선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만나 인터뷰에 자발적인 관심과 필요성을 보여주신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곳만으로 인터뷰인원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남성노인을 쉽게 자주 면접할 수 있는 분위기와 장소로서 “성”에 대한 거부감이나 저항 가능성이 적은 경로당을 선정하였다. 경로당의 노인들은 1년 동안의 봉사활동으로 인해 친숙하고 신뢰감을 가진 상태였기에 심층 면접을 하는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발적 동의를 원칙으로 하였다. 인터뷰 시작 시 연구자의 연구목적 및 인터뷰 자발성원칙을 확인하고, 인터뷰에 응하기로 사전 동의한 남성노인에 한해서 일대일면접방식으로 직접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이며, 참여자 1명당 인터뷰 시간은 평균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 후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접에 대한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2.2 자료 수집방법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약3개월 사이에 공원과 경로당에서 낮1시부터 5시 사이에 공원인사와 1년간의 경로당 봉사활동 및 통장님의 허락을 통하여 안면을 익힌 상태에서 사전에 동의한 남성노인을 일대일면접 하였다.

면접에 앞서, 연구자는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녹음기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남성노인들의 개인 경험 염려에 대한 익명보장과 녹음내용 파기를 철저히 약속한 뒤 진행하였다. 사전에 여러 차례 주제에 대하여 연구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필요성에 관심을 가진 남성노인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건강문제, 가족문제, 노후문제 등의 다양한 관심사부터 질문을 풀어나가면서 면접시간은 상당히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어색하지 않도록 개방적이고 자연스런 질문을 통해 남성노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였다.

2.3 자료의 분석

본 연구는 각각의 사례에 해당하는 녹음 내용을 녹취하여 전부 필사한 후, 메모한 상황들과 함께 검토 하였으며, 녹음 내용은 그 후 삭제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남성노인의 성인식과 성 욕구 해소방법에 대해 유형화 하였으며, 이것을 다시 핵심주제로 묶어, 노인 전문가 동료교수들과 논의 및 자문을 참고하였다.

Giorgi[28]가 제시한 단계들에 의거해서 성에 대한 면담내용을 분석했는데, 4개의 핵심개념을 추출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이며, 그 목적은 연구에 참여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포함한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의식의 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26]. 노인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생애 경험과 시대에 따라 변하며, 그 속에 역동적으로 어우러진 성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개개인의 존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전제로 하는 본 연구에 부합된다. 그 중 Giorgi[2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연구 참여자인 남성노인이 구술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그 경험들의 공통된 구조와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기 때문에 남성노인의 성에 있어 그들이 성생활 경험에서 겪게 되는 현상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과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26].

Giorgi[28]의 연구단계대로 첫째, 먼저 면담 내용 전체에 대한 느낌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번에 걸쳐 녹취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으며, 둘째, 녹취록을 읽은 후 남성노인의 성에 초점을 맞춰 ‘의미단위’를 구분했으며, 셋째, 전환된 각각의 ‘의미단위’들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경험이라고 생각되는 ‘의미단위’들을 묶어서 8개의 하위 구성요소들을 추출했으며 마지막으로 전환된 의미단위들을 남성노인의 성인식의 일반적 구조적기술로 통합하였다.

따라서, 남성노인의 실제 성경험에 기반한 성의 인식과 성욕 해소방법에 대한 솔직하고 사실적인 이야기에 주목하였으며, 두 도시 지역사회 남성노인의 개인적이고 민감한 주제의 내용이므로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일반화 되기에는 제한이 있음을 밝혀둔다.

2.4 연구의 신뢰성 확보 및 윤리적 고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결과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연구의 신뢰성은 질적 연구의 가장 큰 약점이다. 질적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표준화된 자료 및 일반화 가능성 보다는 다양하고 풍부한 삶의 경험에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의 신뢰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수행성의 신뢰성과 신빙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먼저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편견을 통찰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지역 노인의 생활에 통찰력이 있는 현장 전문가, 실무자, 관련분야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인터뷰 내용에 관한 검증을 거쳤다. 그리고 연구대상의 반응성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위험이나 부담이 없도록 연구자가 책임을 다 할 것이라는 점과 모든 정보는 기호로 처리하여 비밀보장 원칙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인터뷰 내용의 녹음에 관해서 구두로 동의를 받은 후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Lincoln과 Guba[27]가 세운 4가지 질적 연구의 엄격성 기준들을 적용하도록 노력했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e value)를 만족시키기 위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연구 참여자의 최초 진술로 돌아가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을 위해 충분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연구 참여자와 3개월간의 반복적 만남을 가졌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을 위해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에서 성에 관한 질적 연구를 하고 있는 다른 연구자들과 의견을 자주 나누었으며 연구과정에 대한 토론도 나누었다. 넷째, 중립성에 대해서는 남성노인이 말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질문을 하여 의미를 명료하게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남성노인 13명 이었으며, 60대 남성노인 3명, 70대 남성노인 4명, 80대 남성노인 5명, 90대 남성노인 1명으로 나타났으며, 4명의 남성노인(이혼2명, 사별2명)만 홀로 사는 남성노인이었으며, 9명은 모두 부부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노인은 본 연구대상자 중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의 대부분은 종교가 없었으며(무교8명), 불교 2명, 기독교 2명, 천주교 1명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수와 학력 및 은퇴전의 직업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Participant	Age	The presence of a spouse	Residential type	Numbers of children	Job before retirement	Religion	Educational background
1	80	Yes	couple	3 sons 1 daughter	office worker	Buddhism	high school graduates
2	75	Yes	couple	1 son 1 daughter	commerce	Catholic	high school graduates
3	94	No(bereavement)	single	3 sons 1 daughter	industry	No religion	high school graduates
4	80	No(bereavement)	single	3 sons 2 daughters	commerce	No religion	high school graduates
5	82	Yes	couple	3 sons 2 daughters	office worker	Buddhism	high school graduates
6	70	Yes	couple	3 sons 1 daughter	insurance sales, musical performer	Christianity	University graduates
7	82	Yes	couple	1 son 1 daughter	office worker	No religion	high school graduates
8	82	Yes	couple	1 son 2 daughters	civil engineering	No religion	middle school graduates
9	67	Yes	couple	2 sons 1 daughter	Civil servant	No religion	middle school graduates
10	72	Yes	couple	1 son 1 daughter	civil engineering	No religion	high school graduates
11	65	No(divorce)	single	1 son	business	Christianity	University graduates
12	73	Yes	couple	2 son 2 daughters	office worker	No religion	University graduates
13	68	No(divorce)	single	2 sons	business	No religion	University graduates

3.2 연구 참여자의 성인식

주관적 건강상태는 3명을 제외하고는 보통이상의 건강한 편으로 인지하였으며, 배우자가 있는 9명의 남성노인 중에서 4명의 노인이 배우자와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전체 13명 중에서, 이성친구가 있는 3명의 남성노인은 성인식에 대한 태도가 아름답고, 활력, 삶의 의미로 인식하였으며, 성욕 해소방법도 이성 친구를 통하여 해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식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표현한 2명의 남성노인 중 1명은 건강상태가 심각하고 사별노인이었으며, 1명 다른 노인은 건강하여 부부관계가 가능하더라도 성욕을 회피하거나, 여가생활로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남성노인은 성인식에 대하여 좋은 것, 타고나는 것, 삶의 활력소, 선천적인 것, 즐기는 것, 최고의 가치, 아름다운 것, 활력과 비타민, 삶의 의미 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운동, 춤, 종교, 여가, 이성 친구, 아내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었다.

<Table 2> The sexual recognition and the solution (sexual desire) of male elderly

Participant	Health status	Sex life with spouse	Sexual contact with the opposite sex	Sexual recognition	The way to solve sexual desire
1	Good	No(yes)	No relationship	I am too old.	No desire
2	Good	Yes(Once a month)	No relationship	Good thing	Exercise
3	Bad	No(bereavement)	No relationship	Indifferent	No desire (Exercise)
4	Good	No(bereavement)	No relationship	Born with it	Dance
5	Good	No(yes)	No relationship	Indifferent	Avoid
6	Good	No(yes)	No relationship	Vitality of life.	The power of religion
7	Normal	No(yes)	No relationship	Innate	Avoid
8	Normal	Yes(Once a month)	No relationship	Enjoyable	To my wife
9	Good	Yes(twice a month)	No relationship	The best value	(Viagra) wife
10	Bad	Yes(yes)	No relationship	I have a sexual desire	Leisure life
11	Bad	Yes(no)	Relationship	Beautiful thing	Relationship
12	Good	Yes(yes)	Relationship	Vitality	Relationship
13	Good	Yes(no)	Relationship	The meaning of life	Relationship

남성노인의 성인식과 성욕해소의 경험적 구성요소들을 통하여 핵심적 주제개념으로 분류한 4가지 개념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성>, <여전히 존재하는 성>, <제약이 있는 성>, <지원이 필요한 성>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Table 3> Empirical components and core concepts

Concept of core theme	Experimental component
Natural and instinctive sex	Sexual life is beautiful and happy during old age It is helpful to health and gives the vitality to the life.
still existed sex	The sexual desire so strong that I would like to have a sex even at dream Regardless of age, I am full of sexual desire
the sex with restriction	It is restricted by disease and aging. It is suppressed by avoiding, minding others
the sex which requires support	Natural relationship and alternative program are required. Our generation had no opportunity and no sex education.

3.2.1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성

남성노인의 성에 관한 질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의 건강상태와 질병여부 그리고 배우자의 건강여부와 이성 친구 유무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노년기에도 성생활이 주는 즐거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성이란 좋은 것이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므로 노년기에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며, 식욕과 같이 건강에도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소이자 남자에게 유토피아라고 하였다.

가. 노년기에도 성생활은 아름답고 즐거운 것

“남자의 성이란 좋은 것이야 여자도 좋지만 남자에게도 좋은 것이야 나이가 많아서 오래는 못해도 아내도 좋아하고... 나도 성생활에 즐거움이 있지”(참여자2; 미소가득 머문 얼굴료

“나이가 들어도 성 욕구는 있지, 주말에 오는 아내를 오랜만에 보면 손잡고 싶고 아내와 성생활을 하고 싶고”(참여자9; 아내를 그리워하는 표정으로.)

“성 욕구를 자제하는 편이지만 만나는 여성한테는 요구하는 편이지 성 생활은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참여자11; 담배를 피우시면서....)

나. 건강에 도움을 주며 삶의 활력이 됨
 “남자에게 성을 빼면 되나 남자에게 성욕구가 없으면 안 되지 식욕이나 다른 욕구와도 같은 즐거움이지 건강에도 좋고”(참여자1 ; 마냥 웃는 얼굴로 약간 상기된 모습으로)

“성 생활도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야 운동이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니깐 ”
 (참여자2 ; 답답하고 표정없는 모습)

“(성은)부모에게 받은 유전이잖아 건강하다는 거고, 꼭 상관관계가 아니어도 남자라는 것이 자부심이지 ... ”(참여자4 ; 조용조용하신 모습)

“성은 삶의 활력소지 힘이 나게 하고”(참여자6 ; 매우 건강한 어르신)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 건강을 유지하고 싶게 하니깐”(참여자8 ; 남자의 건강은 성문제라고 늘 주장하심)

“성이란 건 남자에게 있어서 유토피아 같은 거지, 황홀한 거고”(참여자9 ; 면접 전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참여자)

이와 같이 남성노인 대부분은 노년기 성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 특히, 남성에게 성은 뺄 수 없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성을 통해 활력을 발산함을 알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노년기의 성이 남성노인들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으며, 노년기의 성은 기능이 아닌 노인의 삶의 질에 연관된다는 차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3.2.2 여전히 존재하는 성

남성노인들은 노년기에도 변함없는 성욕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이 되었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남자이므로 중요하고, 또는 나중에 약의 보조를 받더라도, 사별과 이혼의 경우에는 여자친구를 통해서라도 삶의 의미를 느끼고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꿈에서라도 하고 싶을 만큼 성욕구가 존재함

“주말부부여서 아내가 없을 때에 외로울 때 꿈속에서 나 신체의 반응으로 성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참여자 9 ; 말이나 행동이 매우 적극적임)

“늙어도 성욕구가 있고, 남자가 힘이 생기면 참지 않는다, 나중에도 비아그라를 쓰면 몇 년은 더 즐길 수 있을 것이니까”(참여자 8 ; 건강해보이고 쾌활하심)

“성 욕구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니까, 여자친구상대만 있으면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답니다 참여자3 ; 비교적 적극적, 긍정적이셨음)

나. 나이와 상관없이 성 욕구가 충만함
 “나이가 들어도 성욕구가 있지 노인이라고 해도 남자니깐”(참여자2 ; 모자를 항상 쓰고 계셨고, 운동을 즐기시는 노인)

“노인이라도 성욕구가 있지 나이량은 상관없어”(참여자4 ; 이러한 성 연구에 관심이 많으니, 자주 하라고 매우 적극적으로 격려하심)

“성이란 건 본능적인 거잖아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지 남자에게 있어서는 성이란 본능적인 욕구이고 최고의 가치지”(참여자9 ; 대상자 중 비교적 젊어 보이셨고, 본 연구에 관심이 많으셨음)

“성욕구가 올라 올 때가 있지, 나이가 들어도 성 욕구는 있어”(참여자11 ; 부유하고, 대졸자이셨으나, 이혼하심)

이와 같이 노년기에도 남성노인의 성적 욕구는 정신적 및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2.3 제약이 있는 성

남성노인들 중에는 질병이 심각하거나 배우자의 성생활 거부 또는 성생활 파트너의 부재로 인하여 성욕구를 기피하거나 자제하는 현상도 상당히 어렵게 표출하였다.

또한 심리적으로 성욕은 있으나 노인에 대한 주변의 시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억제하거나 운동 및 여가생활 등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질병과 노화로 제약이 있는 성

“성은 지금 늙어서 되나. 다 늙었는데 지금 되나, 지금은 욕구보다는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제일 힘들다. 죽을 때 다 되었는데 성은 무슨 성이나..”(참여자1; 건강과 경제상황이 나빠서서 한숨과 개인적 신세 한탄을 많이 하셨음)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아내가 죽고 성은 떠난지가 오래다 생각뿐이잖”(참여자3; 연령이 많아서서 힘들어하심)

“이제 그런건 없지, 나이가 있고 건강이 불편해서 몸이 아프니깐. 눈치도 보이고..”(참여자10; 건강문제로 손을 내저으심)

나. 사회통념상 회피하고 눈치보며 억제되는 성
“늙고, 병든 노인이 성을 찾으려면 주변에서 뭐라 할까 봐 눈치 보인다.”(참여자3; 가장 고령노인이었고, 주변의 눈치를 보심)

“그래도, 늙어도 남자는 남자지. 생각나면 참기가 쉽나? 늙으니깐, 참는 거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운동이라도..”(참여자5); 머리를 긁적이시면서, 종종 입맛을 다셨음)

남성노인들은 질병과 노화로 인한 상실감과 심리적 욕구 불충족으로 인한 부정인식을 통해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노인 성문화에 대한 건강한 해소법과 인식검토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4 지원이 필요한 한 성

남성노인들은 솔직한 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구체적인 성교육의 기회도 없었고, 콘돔유포식의 형식적 보건교육을 거부하였으며, 자녀들과 사회의 진정한 관심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자연스러운 이성교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문화와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을 원함

“홀로 사는 노인들을 자꾸 모임 같은 데에 참여하게 하고 이성이나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야 만나는 사람들끼

리 정이 생기지”(참여자2; 눈을 크게 뜨고 혼자 사는 남자는 모든 것이 힘들다고 힘주어 강조하심)

“노인이 사회에 문제가 많잖아 성 범죄도 있고, 그러니깐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관심을 가져줘서 이성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살아가..”(참여자9; 비아그라 약을 이야기 하실 정도로 성욕의 필요성을 강조하심)

“복지관에서나 자식들이 노인들의 성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이라도 어울리라고 권하고 관심을 가져줘야지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이성의 노인들과 만날 수 있도록 문화행사나 모임을 만들어서 연계해야 돼”(참여자11; 이혼하신 분이라 황혼 모임과 교제를 적극적으로 강력히 요청하심)

나. 성교육경험과 기회조차 없었던 노인세대

“성 욕구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소개 받은 것도 없고, 누가 상담해 도와주나, 그냥 본인이 해결하는 거지. 다 늙어봐라 독거노인 아니냐.”(참여자13; 건강하지만, 해소할 상대가 없으면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많이 하심)

“우리가 옛날엔 성교육이 어디 있었나, 어떻게 무슨 방법을 찾아주는지 성병 걸리지 않는 교육밖에 없지 않나..”(참여자9; 노인에 맞는 성교육을 만들라고 강력히 계속 주문하심)

이와 같이, 남성노인들은 노년기에도 여성노인보다는 성에 관심이 많았고, 홀로 사는 노인과 남성노인들을 위한 이성교제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지원을 바라고 있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산과 경남의 두 도시 지역의 공원과 경로당에서 65세 이상 남성노인 13명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사전 동의한 남성노인의 성인식에 관하여 생생한 경험에 주목하고자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조사하

였다.

연구 참여자인 남성노인들의 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성>, <여전히 존재하는 성>, <계약이 있는 성>, <지원이 필요한 성>의 4가지 핵심유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노인들의 실제적인 성생활 경험을 통한 심층적 이해와 노년기 다양한 해소방안지원에 대한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경험적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결과, 첫째, 남성노인은 대부분 신체적 노화가 진행되더라도, 노년기 성생활은 ‘꼭 필요한 것’이며, 본능적이고, 활력적이며, 삶의 의미와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인식하였다.

둘째, 건강이 나쁘고, 질병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여전히 욕구’가 있으며, 배우자의 거부 또는 본인의 질병으로 성관계가 불가능 하더라도, 욕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나타내었으며, 정기적인 성생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남성노인들의 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60대, 70대, 80대, 90대 남성노인 모두가 연령과 노화 및 질병의 제약이 있더라도, ‘자연적인 것’이며 당연한 것이므로 주변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변화되어야 하며, 현재의 남성노인들은 ‘실질적인 성교육’의 기회가 없었고, 성병 예방을 위한 제한적 성교육보다는, 압박한 ‘고령사회’에서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노년의 성생활에서 현실적, 구체적으로 홀로된 노인과 남성노인들을 위한 성욕해소방안과 이성교제 및 프로그램개발 등 ‘다양한 국가적 지원 대책’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노년기의 성문제는 무엇보다 노인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안과 연령별, 성별, 건강상태별, 지역별로 다차원적인 지원책을 의료, 법률, 간호, 복지, 교육, 심리, 실버산업 등 영역에서 융복합적 콘텐츠개발로 연계시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 남성노인의 건강한 성생활과 건전한 성문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증가하는 노년기의 성문화에 대해 사회문화적인 인식개선과 이를 위한 전세대별, 생애주기별 학교교육과정에서 실제 노인성문화 인식교육 등이 개발, 구성되어야 하고, 대중매체 홍보 등을 통한 사회적 편견 교정 및

개방적 사고전환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 세대 노인들은 구체적 성교육을 받을 기회와 경험이 적었고, 여성노인은 소극적, 남성노인은 주도적이어야 했던 유교적 문화와 정서관계 중심적인 여성노인과 신체육구 중심적 남성노인 간의 해소 불균형의 성인식 차이가 존재하므로 ‘여전히 존재하는 성’ 욕구에 대한 다양한 해소방안을 사회적, 국가적으로 지원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복지기관, 노인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공원, 경로당에서도 특화된 성교육 및 체계적 매뉴얼화 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거주노인별 세분화된 욕구맞춤식 이성교제 프로그램과 홀로된 노인, 남성노인들을 위한 여가, 건강, 교육, 상담, 봉사 등을 포함한 융복합적 콘텐츠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전 세대 노인성문화 인식개선교육과정 개발 및 노인을 위한 성교육과 프로그램 지원개발을 통한 심리, 의료,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양성과 인프라 구축은 고령의 노인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개발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다.

100세 시대에 인생 삼분의 일 이상을 성공적인 노년기로 영위하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생기있는, 즐거운 인생후반을 꿈꾸는 적극적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멋진 노후를 예약하기 위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예비노인들과 젊은이들의 노년기 성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과 더불어 현재노인과 더 건강하고, 의욕적인, 미래노인들을 위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단일집단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60대와 80대는 많은 차이가 존재[25]하므로 이들에 대한 연령별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일대일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의 결과로서, 지역의 소수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분석내용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남녀노인비교 등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은퇴이후 장기간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남성노인들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문화를 위하여, 실제 노인의 관점에서 생생한 경험적 성인식을 있는 그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여, 노인복지적 관심과 차별화된 서비스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제공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http://kostat.go.kr/portal/korea/kor/nw/2/1/index.board?bmode=/read&aSeq=348565>, September 24, 2015.
- [2] Yeonhap news, '65 years old→100 years old'...,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8/0200000000AKR20160118134000017.HTML?from=search>, 2016.1.19.
- [3] M. R. Lee, "Study on the quality of old age life and the elderly group", the source book of the 68th Spring Conference, p. 152, 2011.
- [4] M. S. Kim, "Understanding and consultation about the sex of elderly", *Human Rights and Welfare*, Vol. 2, pp. 16-38, 2007.
- [5] T. H. Kim, & H. S. Han, "Sex in the aged", *The Journal of Living Culture Research*, Vol. 10, pp. 89-107, 1996.
- [6] H. S. Pyun, "Research on the lives of sex of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International Society of Community Development*, Vol. 35, No. 2, pp. 113-125, 2010.
- [7] K. J.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old women's understanding of sex on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pp. 56-62, 2002.
- [8] Y. S. Lee, "Senior men's sex recognition and sex desire relief exper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2011.
- [9] W. M. Bortz, & D. H. Wallace, "Physical fitness, aging and sexuality", *West Journal Medicine*, 170, pp. 167-169, 1999.
- [10] J. H. Kim, "Perception of sex, sexual life and sexual satisfaction of adul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pp. 44-50, 2005.
- [11] W. S. Lee, "Study on the expression of sexual desire of elderly - targeting the male elderly spending their time in the park",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09.
- [12] H. S. Lee, & S. Y. Kim, "Qualitative study on men's sex life in old age", *The Journal of Living Culture Research*, pp. 207-234, 2009.
- [13] S. W. Lee, & C. W. Kim, "A study on tendencies of the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social service programs in Korea: Focused on participation, information, and proces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4, No. 4, pp. 261-285, 2013.
- [14] S. J. Hwang, & W. S. Shin, "The subject perception types of the elderly on senior sexuality",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Vol. 35, pp. 207-234, 2014.
- [15] T. Y. Ahn, Y. H. Kim, J. Y. Koh, & M. I. Kim, "A research on the sexuality of the elderly in Gyeonggi province", *Gyeonggi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 pp. 211-216, 2011.
- [16] S. Y. Yoo,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among older adults", *Nursing Science*, Vol. 21, No. 2, 2009.
- [17] C. Y. Cho, "Love and Lifestyle appeared in Korean couples living together without marriage in their twilight year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8, pp. 29-60, 2012.
- [18] K. B. Choi, "Sexual life and ego-integrity among elderly people", *The Journal of Living Culture Research*, Vol. 10, No. 2, pp. 109-120, 2008.
- [19] H. S. Kim, "Corelation on perception of sex, sexual life and marital relationship in older adult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38, 2007.
- [20] E. H. Hwang, & S. S. Jin,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sexuality among community-dwelling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24, No. 2, pp. 83-190, 2012.
- [21] D. S. Ra, & Y. D. Kim, "The impact of the elderly's sexual life and sexual attitude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Living Culture Research*, Vol. 52, pp. 185-203, 2011.
- [22] C. M. Kim, & E. M. Kim, "Factors influencing elders' satisfaction with sexual lif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Rural Health Nursing*, Vol. 5 No. 2, pp. 74-83, 2010.
- [23] B. M. Kim, & E. H. Lee, "The medicating effect of

- senior citizens'sexual desire-coping behavior on sexual attitude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1, pp. 575-585, 2015.
- [24] S. J Lee, Y. S. Lee, & Y. E Kim, "The degree of elderly sexual desire and their attitudes towards sex", *Korean Journal Clinical Social Work*, Vol. 10, No. 1, pp. 1-21, 2013.
- [25] M. R. Lee, & G. S. Lee, "Classification of Gerontological age from the view of the elderly's statistics", *Korean Association of Academic Societies for Gerontological Science*, Unpublished, 2009.
- [26] K. H. Lee, & G. H. Youn, "Sexuality for the Elderly Women Who have Been singl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 15, pp. 105-131, 2006.
- [27] Y. S. Lincoln, & E. Guba,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lifornia:sage, 1985.
- [28] A. Giorgi,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In A. Giorgi, Pittsburgh, Philadelphia, Duquesne University press, 1985.
- [29] Jin-Kyoung Park, "Convergence factors among their physical state, function and activities influencing on the cognition of elderly residents in a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153-162, 2015.
- [30] Myoung-Jin Kwon,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Cognition,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171-176, 2015.

이 미 란(Lee, Mi Ran)



- 2012년 4월 ~ 현재 : Japan Shiraume Gakuen University 객원 교수
- 2011년 8월 : 신라대학교 가족노인 복지학과 (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지역사회복지

· E-Mail : dsmr0815@Kosin.ac.kr